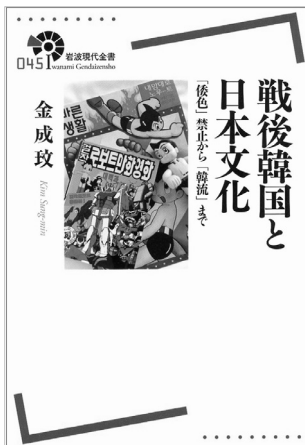


서평

전후 한국과 일본문화

—“왜색” 금지에서 “한류”까지

현무암_ 호카이도대학



김성민, 『戦後韓国と日本文化-「倭色」禁止から「韓流」まで』, 岩波書店, 2014.

전후 한일관계는 점령과 군정, 독립과 분단, 전쟁과 부흥이라는 제국 질서의 해체와 냉전 체제의 구축이 중층적으로 얽혀 전개되고, 그에 따른 미국의 압도적인 지배구조 하에서 모색되었다. 식민지를 상실한 일본은 국민국가와 주권국가로의 전환을 도모하면서 한국과의 관계 구축에 나섰다. 한편, 전후 국제질서 체제에서 냉전 상황의 최전선으로 떠밀려 전쟁과 분단에 시달린 한국은 반공주의에 앞장서면서 일본과의 관계 설정을 모색하게 된다.

이러한 냉전 체제 및 샌프란시스코 체제하에서 한일 양국은 국교 정

상화 협상을 전개했다. 이를 주도한 것은 정치 엘리트들이었으나, 정치·경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1965년의 한일조약을 수렴하는 한일관계(이 책에서는 '65년 체제'라 지칭한다)는 '(물)협상의 시대'와 '교류의 시대'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이 두 시대는 마치 전혀 다른 세계인 것처럼 다루어져 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치적·경제적 관계에 반드시 포섭된다고는 할 수 없는 사람들의 이동이나 문화의 월경(越境)이라는 측면에서 볼 경우 '협상의 시대'와 '교류의 시대'는 전후 한국의 탈식민지화 과정으로서, 단절이 아닌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경계의 구축과 해체가 대항하는 포스트 콜로니얼(postcolonial)한 공간이기도 했다.

이 책은 이처럼 한일 양국의 정치·경제적인 관계 구축에 포함되지 않는 문화 영역에서의 과제를 '보더링(境界構築)'과 '트랜스 보더링(境界侵犯)'이라는 포스트 콜로니얼적 문제로 받아들여, 한일 양국을 지배하는 냉전 구조와 그것을 기반으로 하는 미국의 위압적(하드)인 문화력(소프트 파워) 아래에서 주로 한국이 국민국가를 구축하는 데 동원되는 이데올로기로서 구 식민지 종주국인 일본의 대중문화를 어떻게 대해 왔는지를 논한 획기적인 한일관계론이라고 할 수 있다. 한일 대중문화의 월경과 교류를 문화정치적인 시점에서 접근하여 금지와 개방, 합법과 불법, 수입과 표절, 한류와 혐한(류)이라고 하는 이항대립적 구도에 귀착하는 기존의 연구와는 분명히 구별되는 독자성을 보인다.

저자는 전후 = 해방 후 한국에서의 일본 대중문화 수용과정에 주안을 두고, 그러한 문화적 실천의 양면가치적인(ambivalent) 다양성·복잡성을 해명하기 위해 호미 바바(Homi K. Bhabha)가 언급한 '포스트 콜로니얼적인 관점'을 근거로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탈식민화와 근대화로 향하는 한국이 일본 대중문화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균열·모순·갈등을 내포한 역사적 맥락의 좌표축으로 작용하는 '아이덴티티(identity)정치'를 둘러싼 국민국가 내부의 확립(確執)을 '일본 대중문화 금지'로 파악했다. 이 책

에서 일관되게 주장하는 키워드인 ‘금지’라는 개념에 관해 전후 한일 양국의 문화 월경을 통해 파헤쳐 보자.

일본의 식민지 지배하에 있었던 한반도는 자국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일본 대중문화권에 휩싸이게 된다. 그리고 전후 일본으로부터 독립하여 근대화로 나아가는 과정의 한가운데에 있던 한국의 대중문화는 국민국가의 건설과정에서 내셔널 아이덴티티(national identity)를 상상 = 창조시키는 중요한 장치가 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으로 흘러 들어가는 대중문화가 탈식민지 과정에서 청산해야 할 舊 중주국 일본의 것이라면, 그것은 국민국가화 프로젝트에 있어서 포스트 콜로니얼적 과정의 정치적·문화적 과제가 되는 것을 의미했다.

전후 한국에서의 문화적 실천을 설명하는 데 가장 강력한 담론으로 가능하고, 일본 대중문화를 통제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왜색일소(倭色一掃)’라는 ‘반일(反日)’구호다. 그러나 전쟁과 독재에 시달린 탈식민지 한국에서의 문화적 욕구는 이러한 담론을 받아들이면서도 거기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초래하였다. 그것은 전후 한국에 일본 대중문화가 본격적으로 유입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지만, 필연적으로 우위에 있을 수 밖에 없는 일본 문화에 국내 시장을 빼앗기거나 저속한 문화가 확산될 것이라는 논의를 불러일으켰다. 즉, 일본의 대중문화를 둘러싼 자신의 경제적·문화적인 정체성의 문제로 인식되어 아이덴티티의 확립을 위해서라도 일본문화는 반드시 배제되어야 했던 것이다.

‘일본 대중문화 금지’는 이처럼 전후 한국 사회에서 일본의 문화를 국가 정체성 구축을 해치는 부정·거부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면서도, 비공식적으로 그것을 수용함으로써 거듭되는 문화적 역동성(dynamism)을 나타내는 문제로 평가된다. 전후 한국의 일본 대중문화에 대한 ‘금지’는 정체성 구축을 목표로 하는 문화적인 제반 규범이 항상 복잡하게 얽혀 갈등과 모순이 생긴다는 동아시아의 지정학적인 조건이 만들어 낸 역사적

산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지’는 일본 대중문화가 합법과 불법, 허용과 위반, 종속과 저항이라는 이항대립적 틀을 설정하는 전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금지’는 전후 재정비된 국경의 범주 안에 또 하나의 ‘경계’를 마련하여, 그 시대의 정권이 자신의 존재 의의와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확립한 담론이었다.

즉, 정치권력이 유입하는 일본 대중문화를 국내 정치에서 이데올로기로 동원하려면 문화의 월경이 구체화(실체화)되어야만 했고, 바로 그 역할을 담당해낸 것이 ‘왜색일소’인 것이다. 그리고 ‘금지’를 수행하는 통치 기술은 법규적인 제도라기보다는 일본 대중문화를 ‘금지’하는 ‘사회적 담론’에 의거한 것이었다. 이러한 ‘내적 경계’를 유지하고 재생산하기 위해 ‘금지’는 그 실존 여부에 상관없이 계속 주장되어야만 했다.

이처럼 전후 한국은 일본과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으로 왜곡된 문화 관계 속에서 사회적 규범으로 작용하는 ‘금지’를 통해 일본의 대중문화와 마주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게다가 ‘금지’는 이미 지나간 과거의 것이 아니다. ‘한류(韓流)’ 나 ‘일류(日流)’라는 대중문화와 국익 중시의 미디어 보도가 혼재하는 동아시아의 커뮤니케이션 형성에 미디어 문화적인 흡인력과 반발력이 대립하는 한일 양국 간의 문화 관계는 ‘한 번도 제대로 서로를 직시하지 않고’, 계속해서 ‘동아시아의 지정학적인 조건이 만들어 낸 역사적 산물’로서 지금은 그 형태를 바꾸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일 양국의 문화 월경을 보다 중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양국의 역사적 맥락과 정치적 구체성에 입각한 ‘금지’의 전개 과정에 눈을 돌려, 다양한 문화적 경험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이 책에서 전개되는 한국의 일본 대중문화 수용과 소비는 글로벌한 관점에서 보면 보편성을 띠면서도 전후 한일 양국의 역사·정치적 구체성이라

는 맥락 속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석이 한층 더 돋보이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도 이 책에 언급한 전후 한일 관계에 있어서 문화월경의 중요한 접촉지였던 부산(釜山)지역에 주목한 것은 커다란 의미가 있다. 부산은 문화의 접촉지였던 동시에 ‘내선 결혼(內鮮結婚)’이 파탄에 이른 일본인 여성의 귀환이나 ‘이승만 라인’을 넘어 나포된 일본인 어부의 억류와 석방, 혹은 일본에 ‘밀항’해 나가사키현(長崎縣) 오무라수용소(大村收容所)에 갇혀 있던 사람들의 강제송환 과정에서 양국을 이동하는 사람들이 교차하는 접촉지이기도 했다. 여기에 전후 한일 양국의 새로운 경계가 획정될 때 전개한 인적·문화적인 ‘협상’과 ‘교류’의 ‘경계의 정치’가 응축되어 있다.

다소 과한 비유일지도 모르겠으나, 전후 한일 양국의 포스트 콜로니얼한 공간에서 사람과 문화의 월경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금지’의 기술로 ‘경계의 정치’를 뒷받침한 ‘내적 국경’이 ‘왜색일소’와 일본인 어부를 억류한 ‘부산수용소’였다고 말할 수도 있다. 한일 관계 구축의 협상 과정은 청구권 문제와 식민지 지배 인식을 둘러싸고 대립하는 정치 엘리트들뿐만 아니라, 국가 이외의 행위자로 이동하는 사람들이나 월경하는 대중문화에도 주목해야 한다.

이 책에서는 ‘일본 대중문화 금지’라는 ‘내적 경계’가 수행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한국 사람들의 다양한 문화월경의 실천에 대응해 온 ‘금지 메커니즘’의 역사적·정치적 동태를 밝히고 있다. 이러한 문화적 경계의 구축과 해체의 역동적인 전개를 통해, 전후의 한일관계 형성과 현재의 ‘경계’의 의미를 재고할 수 있을 것이다. **[日本空間]**

번역: 강은정(조치대학 신문학과)